

현안과제연구

태안군 대표 수산물(특산물) 선정 연구

연구수행: 김종화 (농촌농업연구부)

태안군 대표 수산물(특산물) 선정 연구

연구수행: 김종화 (농촌농업연구부)

목 차

I. 배경 및 필요성	2
II. 선행연구 검토	2
III. 지역특화 수산물 선정	4
IV. 지역특화 수산물의 브랜드화	9
V. 맺음말	10
참고문헌	11

I. 배경 및 필요성

- 태안은 동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국내 유일의 해양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음. 해안선이 530.8km에 달하고 119개의 도서가 분포되어 있어 예부터 어업·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임.¹⁾
- 태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전복, 바지락, 꽃게, 해삼, 가무락, 가자미, 넙치 등 전통적인 서해안 어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어업과 어선어업, 복합어업이 골고루 성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태안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며, 다양한 품종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브랜드로 육성시킬 수 있는 지역특화 수산물을 특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브랜드는 지역이미지를 브랜드가치로 연상시켜 다양한 지역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최근 어촌특화 또는 6차산업화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어업인 소득향상 등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물이 되는 지역 대표 수산물 선정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안의 대표 수산물을 선정하고, 지역브랜드의 관점에서 대표 수산물의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태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가자미, 조피볼락, 대하, 꽃게, 바지락, 전복, 해삼, 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음.

II. 선행연구 검토

- 지역 대표 특산물에 대한 연구는 지역특화품목이라는 주제 하에 농산물 또는 농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음.
 - 김충실(1991)은 의성군을 사례로 소지역단위의 특화작목 및 특화작목조직에 대하여 특화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8개의 특화영농조직과 14개의 작부조직의 특화유형이 181개 소지역에서 특화상태임을 밝혔다.
 - 이성우 외(2003)는 다중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하여 경기도지역

1) 태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taean.go.kr/html/kr/intro/intro_02_01.html」

농산물의 작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경기도 지역의 작목별 경쟁력이 상이하고, 정보화산업의 농촌지역 의식이 농축산물 판매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친환경농업과 농축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음(陰)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

- 백승우(2004)는 산간지역인 장수군의 특화품목인 오미자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특화계수와 투자분석, 경제효과분석을 통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지역농업 발전방안을 제시함.
- 김충실 외(2010)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역농업특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령군 운수면은 벼, 영양군 청기면은 고추, 영주 봉현면은 사과, 경산시 남천면은 포도, 영천시 북안면은 복숭아, 성주군 선남면은 하우스 참외, 경주시 양북면은 한우, 고령군 다산면은 육우, 고령군 개진면은 돼지, 경주시 천북면은 산란계가 특화되었다고 하였음.
- 이동필 외(2011)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전상곤 외(2014)는 경남지역 58개 품목에 대해 특화계수와 지역성장률시차 분석 등을 통해 개별 품목들의 지속적 성장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유망품목과 정체·사양품목으로 구분하여 성장가능성 분류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농업에서의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연구는 특화계수, 지역성장률시차, 다중모델, 요인분석 등의 계량적 수법을 통하여 지역특화작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역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이동필 외(2007)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수산업에서는 농업과 달리, 지역브랜드의 관점에서 지역특화 수산물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음.

- 조용범 외(2007)는 부산 지역 명품 브랜드화가 가능한 수산물(고등어, 미역, 멸치액젓, 김, 어묵, 곰장어, 송어 등)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브랜드화에 대한 전략적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수관 외(2010)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의 품질 차별화와 브랜드화를 통하여 지역 수산물 가치향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지역의 대표 수산물로는 주꾸미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품질, 유통, 홍보 등에서의 후속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주문배 외(2010)은 수산물 브랜드의 현황과 지원사업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 및 소비자·생산자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수산물 브랜드의 문제점

과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수산업에서는 지역수산물 브랜드화를 통하여 지역 수산업과 수산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또한 지역수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것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수산업은 농업과 다르게 지역특화 수산물을 특정짓지 못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과 비교하여 실제 특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또한 “지역특화” 라는 용어가 선택과 집중, 차별성이라는 의미에서 지역특화에 적합한 브랜드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안지역의 지역특화 수산물을 특화계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 특화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III. 지역특화 수산물 선정

1. 태안군 수산업 현황

- 태안군의 어가 수는 4,450어가, 어업인구는 10,498명, 어선은 1,823척을 보유하고 있음(2012년 기준)[표 1].
 - 전국대비 어가 수 7.38%, 어업인구 7.13%, 어선 수 2.56%
 - 충남대비 어가 수 47.4%, 어업인구 49.1%, 어선 수 29.9%
- ※ 어가 수(전국 60,325어가, 충남 9,385어가), 어업인구(전국 147,300명, 충남 21,375명), 어선 수(전국 71,287척, 충남 6,100척)²⁾

[표 1] 태안군 어가 수, 어업인구, 어선보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어가 수(어가)	4,450	3,283	4,450	4,450	4,450
어업인구(명)	10,498	8,204	10,498	10,498	10,498
어선보유(척)	1,716	1,719	1,740	1,795	1,823

자료: 태안군 통계연보, 2013.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가 수, 어업인구, 어선 수, 2013년도

- 태안군의 수산물 어획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표 2].
 - 태안군 수산물 어획고 수량은 2008년에는 9,790톤에서 2012년에는 7,178톤으로 약 2,612톤 감소, 금액은 약 518억원에서 55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
 - 어류는 감소추세이고, 갑각류는 약간 증가세, 연체동물은 보합세임.

[표 2] 태안군 수산물 어획고

(단위: 톤,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수량	9,790	9,968	7,552	7,340	7,175
	금액	51,754,399	64,082,742	54,424,416	56,459,055	55,311,753
어류	수량	3,463	2,587	1,919	1,642	1,609
	금액	13,274,149	12,721,956	9,360,826	9,812,369	9,616,122
갑각류	수량	1,780	2,692	3,114	2,279	2,233
	금액	20,810,118	31,535,300	30,837,381	23,592,367	23,120,520
연체동물	수량	2,182	3,174	1,172	2,452	2,403
	금액	11,619,338	14,688,855	9,700,559	19,440,237	19,051,432

자료: 태안군 통계연보, 2013.

- 태안군의 수산가공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표 3].
 - 수량은 2,800톤에서 3,466톤으로 약 666톤 증가, 금액은 847백만원 증가

[표 3] 태안군 수산가공품 생산현황

(단위: 톤,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800	1,531,981	5,316	2,733,282	3,766	2,775,100	3,465.8	2,379,000

자료: 태안군 통계연보, 2013.

- 태안군의 어촌계는 총 87개소가 있으며, 그 중 18개소는 주로 대하, 꽃게, 감태를 생산하고 있음. 어업권은 면적 6946.5772ha이며 주된 업종은 전복, 바지락, 굴, 가무락, 피조개, 미역, 다시마 등임.

2. 특화계수 분석 및 특화 수산물 선정

- 태안의 수산물이 전국적 규모와 비교하여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화계수(Location Quotient)분석을 실시하였음.
 - 특화계수는 어떤 지역의 특정부문 구성비를 전국의 동일부분 구성비와 비교하여 지역내에서의 특정부분이 전국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특정 부문의 상대적인 집중도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됨.³⁾
- 특화계수(LQ)는 생산금액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LQ = \frac{\left(\frac{E_{ij}}{E_{tj}}\right)}{\left(\frac{E_i}{E_t}\right)}$$

- E_{ij} 는 태안지역(j지역)에서 특정 수산물(i)의 생산금액
 - E_{tj} 는 태안지역(j지역)에서 전체 수산물 생산금액
 - E_i 는 전국에서 특정 수산물(i)의 생산금액
 - E_t 는 전국 수산물 생산금액
- 태안의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화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특화계수가 1이면 그 지역이 평균수준과 같다는 의미이고, 1보다 작은 것은 특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임.⁴⁾ 따라서 [표 4]에서는 대구류, 노래미, 홍어류, 대하, 꽃게, 민꽃게, 바지락, 해삼, 고동류, 주꾸미가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 중, 홍어류, 대하, 꽃게, 민꽃게의 특화계수가 매우 높으므로, 이들 품목을 태안의 특화 수산물로 선정할 수 있음.

3) 전상곤 외(2014), 원자료: 김철욱 외(2012)

4) 전상곤 외(2014)

[표 4] 태안군 수산물 특화계수

(단위: 천원)

	E_{ij}	E_{tj}	E_i	E_t	LQ	판정
가자미	1,024,337	77,610,895	142,980,486	5,818,852,780	0.537132	특화아님
넙치	2,469,332	77,610,895	475,676,545	5,818,852,780	0.389209	특화아님
대구류	2,558,151	77,610,895	33,662,982	5,818,852,780	5.697552	특화약함
조피볼락	525,397	77,610,895	198,921,985	5,818,852,780	0.198025	특화아님
노래미	998,120	77,610,895	15,229,599	5,818,852,780	4.913704	특화약함
붕장어	1,868,686	77,610,895	141,371,429	5,818,852,780	0.991036	특화아님
홍어류	2,304,241	77,610,895	9,676,296	5,818,852,780	17.853914	특화강함
대하	3,912,031	77,610,895	12,437,530	5,818,852,780	23.582119	특화강함
꽃게	42,233,075	77,610,895	266,728,155	5,818,852,780	11.871307	특화강함
민꽃게	1,100,422	77,610,895	13,174,029	5,818,852,780	6.262609	특화강함
바지락	2,200,798	77,610,895	51,529,396	5,818,852,780	3.202136	특화약함
전복	124	77,610,895	257,075,584	5,818,852,780	0.000036	특화아님
해삼	547,956	77,610,895	28,844,444	5,818,852,780	1.424289	특화약함
굴	23,929	77,610,895	152,948,704	5,818,852,780	0.011730	특화아님
고동류	2,615,011	77,610,895	34,775,414	5,818,852,780	5.637881	특화약함
낙지	1,004,769	77,610,895	131,834,882	5,818,852,780	0.571414	특화아님
주꾸미	2,861,774	77,610,895	43,569,907	5,818,852,780	4.924514	특화약함
오징어	4,908,548	77,610,895	479,620,084	5,818,852,780	0.767309	특화아님

주: 분석 품종선정은 생산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태안군청 제시 품목
 자료: E_{ij} , E_{tj} 는 태안의 수협(남면, 서산, 안면)의 계통 출하량의 합임.

E_i , E_t 는 수산정보포털의 어업생산통계치임(단,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제외).

- 또한, 특화계수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 외, 지역주민의 요구와 시장정세, 소비 트렌드에 의해 전략품목으로서의 육성이 기대되는 수산물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전복과 감태를 특화 수산물로 추가하였음.
 - 전복은 태안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며, 현재도 총 647건의 어업면허 중 130건이 전복관련임. 또한 한·중 FTA 협상 타결내용 상, 중국의 자율화율 10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대 중국 수출품목으로 주목할 필요 있음.
 - 감태는 태안의 4개의 어촌계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으로, 매출액은 크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곳이 많이 않아 지역 특산물로서 차별성을 가

질 수 있음. 또한 항염효과와 피부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개발이 가능함.

- 최종적으로 태안군 특화 수산물로는 [표 5]와 같이 홍어, 대하, 꽃게(민꽃게 포함), 전복, 감태를 선정할 수 있음.

[표 5] 태안군 특화 수산물 선정현황

품종	선정사유
홍어	특화계수가 17을 넘으며 태안의 대표적인 어선어업 수산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음.
대하	특화계수가 23을 넘으며 대하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태안의 대표 수산물임.
꽃게 (민꽃게 포함)	특화계수 11(민꽃게 6)을 넘으며 전통적인 태안의 어선어업 수산물이며, 향토음식으로 발전가능성도 있음.
전복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양식하던 수산물 중 하나로, 한 중 FTA를 통해 주력 수출품목으로 기대되는 품목임.
감태	타지역에서 별로 생산되지 않아 지역 특산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항염·미용효과로 향후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IV. 지역특화 수산물의 브랜드화

- 태안군 특화 수산물은 전략적 주력 품종으로 육성할 필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유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지역특화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품질균일화를 위한 생산체계 정립이 필요함. 브랜드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품질균일화에 있음. 항상 어떤 상품을 받더라도 동일한 우수한 상품일 경우 그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높아 짐. 따라서 품질균일화를 위한 생산체계 재구축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계획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품종별 생산조직 육성과 생산교육, 지역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출하 확대, 품질균일화를 위한 어업인간 정보공유와 생산 매뉴얼 제작, 태안 수산물 품질인증 등이 요구됨.
- 둘째, 다양한 대안유통채널의 발굴이 필요함. 계통출하외 학교급식, 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거래 등 대안유통채널을 통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함. 기존 계통출하의 유통비용이 판매가격의 약 55%에 달하여 어가의 수취가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태안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직거래를 기반으로 대안유통채널 구축이 필요함.
 - 첨언하여, 대안유통채널은 단순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을 통한 도어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도어교류는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음.
- 셋째, 행정(군)에서 주도하는 강력한 마케팅 정책이 필요함. 군청내 강력한 마케팅 전담부서의 설치와 더불어 주력 수산물을 적극 시장에 어필(appeal)할 수 있는 프로모션의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県)은 지역 특산물인 피망의 마케팅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현 중심의 강력한 마케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북해도(北海道)는 지역의 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을 위하여 마케팅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지역농협과 협력하고 있음.
- 넷째,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주력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하고, 음식개발과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한 6차산업화의 기반마련이 필요함.

- 주력 수산물의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 또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고, 지역 어촌계와 협력한 신제품 개발에도 힘써야 함.
- 지역 수산물과 향토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관광 및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해야 함.

□ 다섯째,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복을 집중 육성하여 태안 전복 수출특화지구를 조성할 필요 있음. 전통적으로 전복은 완도가 유명하나, 태안 전복 또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양식규모도 큰 편임. 또한 중국과 서해안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같은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복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태안산 전복은 수출용, 완도산 전복은 내수용”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이 필요함.
- 대 중국 수출용 맞춤형 전복을 생산함으로써 한·중 FTA를 기회로 활용

V. 맺음말

□ 본 연구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통하여 태안군의 특화 수산물을 선정하고, 특화 수산물 육성을 위한 지역브랜드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태안군 특화 수산물로는 홍어, 대하, 꽃게(민꽃게 포함), 전복, 감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균일화, 대안유통채널 확대, 마케팅 전담부서 설치, 연구개발 및 스토리텔링 발굴, 중국수출을 위한 전복수출특화지구 조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태안군의 특화 수산물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계량적 수치만을 의지하지 않고 특화 수산물을 선정하였음.

□ 태안군은 전통적인 수산강군(水産強郡)으로 다양한 품종의 수산물이 어획·생산되는 곳이며, 수산관련 시설과 먹거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임. 그러나 그동안 유류피해사고에 따른 고통을 겪으면서 태안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진 것도 또한 사실임.

□ 그렇기에, 이번에 선정된 특화 수산물을 통해 태안군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태안 수산업의 재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김수관·김민영·윤영선·김성일·송귀봉(2010), 「전북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와 가치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22(1), 한국도서학회, pp63-77.
- 김철욱·김태완(2012), 「지역농산물의 성장 유망 작목의 선정에 관한 연구: 울산시를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 46(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pp1-9.
- 김충실(1991), 「농산물 무역개방에 대응한 마을단위 특화작목의 개발(I)」, 농촌경제 1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1-78.
- 김충실·이현근(2010), 「대구·경북 지역농업의 특화분석」, 농촌경제 3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99-114
- 백승우(2004), 「산간지역의 농산물 가공유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장수군의 오미자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4), 한국산림휴양학회, pp33-40.
- 이동필·최경환·홍준표(2011),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보고 R6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성우·권오상·이호철(2003), 「경기지역 농산물의 지역별 특화산업 연구」, 농촌경제 2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23-47.
- 전상곤·김영진·김서영(2014), 「경남농업의 품목별 성장가능성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46(3),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pp273-288.
- 조용범·윤태환·정진우·김경묘(2007), 「부산지역 수산물 브랜드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3(3), 한국조리학회, pp137-147.
- 주문배·이현동(2010),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수산물 브랜드 육성방안」, 정책연구 2010-11(기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가 수, 어업인구, 어선 수, 2013.
- 태안군 통계연보, 2013.
- 태안군청 「http://www.taean.go.kr/html/kr/intro/intro_02_01.html」